

## 제182차 원자력계 조찬강연회 개최

이희수 한양대 교수,  
‘최근 중동 정세와 원전 시장 확대를 위한 이슬람문화 이해’ 주제 강연



강연을 하고 있는 이희수 한양대 교수



원자력계 조찬강연회 전경

한국원자력산업회(원자협)가 주최한 제182차 원자력계 조찬강연회가 9월 22일 더팔래스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원자력계 인사 130여명이 참석한 이번 조찬강연회에서 이슬람 전문가인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최근 중동 정세와 원전 시장 확대를 위한 이슬람문화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희수 교수는 강연을 통해 이슬람 문화 이해를 위한 전반적인 개념과 우리나라와의 특별한 관계를 설명한 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초기에 자리를 잡은 계기가 중동이였다. 최근에도 아랍에미리트에서의 200억 달러 규모 원전 수주에 이어 다른 중동 국가들과도 다양한 에너지 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3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할랄 산업도 새로운 블루오션이다.”고 말하고 “아랍과 한국의 1200년이라는 깊은 역사를 되새기며 우리 눈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친구로 끌어안을 준비를 해야겠다. 그것이 실용이고 진정한 국익이다.”고 강조했다.

강연 후에는 김궁구 원자력연구원 SMART개발사업단장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스마트원전 건설 전 상세 설계 협약을 중심으로 ‘한-사우디 SMART 파트너십’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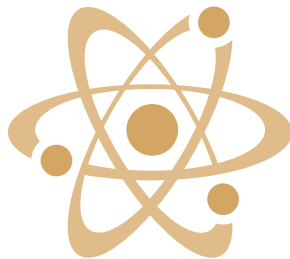
## 한국원산-한국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 MOU 체결



민계홍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상근부회장(사진 왼쪽)과 강교식 한국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 부회장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는 9월 8일 한국원산 회의실에서 원자력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에 체결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원자력 관련 국내 산업의 진흥, 정책 연구, 교육 훈련, 인력 양성, 마케팅 및 기술 지원, 해외 시장 정보 조사 및 수출 지원,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 원자력연합 2015년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원자력연합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

원자력연합 2015년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가 9월 17일 코엑스 2층 오리옥스에서 원자력연합 5개 회원기관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는 원자력연합 운영위원장인 이레나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김일한 대한방사선방어 학회 회장, 송명재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회장, 민계홍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 피승환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상근부회장, 송기찬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2015 원자력연합 심포지엄 개최 결과 보고, 심포지엄 결산 후 운영위원장 임기 종료, 차기 운영위원장 결정 및 임기 이양, 내년도 심포지엄 개최기관 확정, 원자력연합 명칭 변경(원자력협의회로 변경), 회장 직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